

# 거버넌스로 인권도시, 아산을 꿈꾸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물음에 답하는 과정

도농복합 도시인 충남 아산시는 농업중심의 도시에서 삼성, 현대, 만도, 유성, 갑을오토텍 등 공단 이전 및 삼성신도시 조성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어야 했던 아산지역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 현실이 전국적인 노동문제로 확산되었으며, 폭염으로 뜨거웠던 올 여름에도 지난해 폭력사태로 치달았던 사업주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불법 직장폐쇄로 대치중인 갑을오토텍 노동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동, 농업,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인권을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는 열악한 상황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가능한 아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의제를 지역사회 중심 의제로 함께 해결하려는

###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방문객센터 내

전 화 041-531-7791

팩 스 041-541-7732

이메일 asan21@hanmail.net



공감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차별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에 사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응답하는가가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준이며, 삶의 질이다.

‘잠든 아이 얼굴 밖에 본 적이 없어, 다가올 아이의 사춘기가 두렵다’거나 밤에 일하고 낮에 잠들며 아파트 층간 소음이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갈등, 부실 공사,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넘어선다. 학교에서 울며 집으로 온 아이가 “엄마, 내가 다문화야? 다문화가 뭐야?”라는 물음에 함께 울었다는 한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라는 표현에 이미 ‘우리’라는 선을 긋는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다문화는 한국 혈통(?) 여부로 읽히며, 차별 또는 동정의 대상이 된다.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물음에 ‘시민사회, 행정, 기업 등 거버넌스로 풀어야 하는 아산시의 공동 과제이다’라고 답하는 과정이 이 사업의 배경이다.



아산시 인권행정 추진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양성을 통한 시민인권 인식,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인간으로서 존엄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아산을 지향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 “우리 동네 인권을 말하다.”

시민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2012년 제1회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인권을 말하다’ 등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된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인권21 강사단 모임이 6년째 운영 중이다. 2012년 1회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에 아산시의회가 함께 했다. 1회 인권교육을 수료한 아산시의회원을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산시인권조례 내용을 포함한 아산시 인권도시 협의를 위한 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토론,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의 방향과 전망 논의를 거쳤으며, 아산지속협의 사무국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차례의 아산시의회 유보 과정을 거쳐 2015년 아산시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아산시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3년 ‘인권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산시 학교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해 이주여성이 수다로 풀다 1, 2’, 2014년 ‘아산시 인권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5년 ‘아산시 인권조례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성매매 집결지 장미마을 지속가능 발전방향 토론으로 이어졌다. 인권조례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아산지역의 인권 의제에 대한 방향과 내용,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산시의 예산확보, 시의회와 인권네트워크의 역할 등 구체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아산시인권위원회 구성 이후 인권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인권위원

회 역할과 방향 전망 등에 관한 논의와 토론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충남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 의제와 인권교육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충남인권교육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방식으로 확산되는 인권교육의 틀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또 아산지역 성매매집결지인 장미마을의 인권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거버넌스로 인권도시 아산을 꿈꾸다” 혼자 꾸는 꿈은 깨면  
잇을 환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아산의 시민사회단체인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와 아산시, 아산시의원, 아산지속협으로 구성된 아산시인권네트워크에서 인권조례안을 검토하며 인권조례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례 제정 이후 운영을 준비했다. 또 아산시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과 담당부서,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행정 내에서 조율하고 준비했으며, 인권위원회 운영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아산시의원은 인권조례 제정이 두 차례 유보되는 쉽지않은 상황에서도 행정 발의와 의원 발의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례 발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했다. 아산지속협은 인권네트워크 구축, 인권교육활동가 양성 및 운영,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장미마을거버넌스 사무국 운영, 아산시인권위원회 워크숍, 아산시인권위원회와 인권위 실무위에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인권위원회는 몇 차례의 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산시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각 부문별 인권 인식 설문 작성, 설문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투표소 인권 실태 조사와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아산시는 노사 양측에 협상테이블을 제안했으며, 아산시의원들과 인권지킴이단, 인권위원회는 파업노조와 경찰, 용역 사이에 평화지킴이단으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UN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 기념 캠페인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 그들만의 캠페인에서 아산지역시민사회 참여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청소년 참여로 확장되고 있다. 2014년 ‘한 여름 밤의 인권영화 한마당’에 이어 아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풀뿌리여성연대 등과 함께 2016 인권영화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 사업내용

### 1. 아산시인권교육활동가양성과정 : 2012~2016

- 제1회 2012 아산시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 제2회 2013 아산시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제3회 2014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우리 동네 인권을 말하다’
- 제4회 2015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제5회 2016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2.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강사단 모임 운영

- ‘인권21’운영 : 2013년~2016년
- 찾아가는 인권교육 : 2015년~2016년

### 3. 2014 한여름밤 인권영화한마당

- 일시 : 2014년 8월 1일~29일, 매주 금요일 19:00~21:00
- 장소 :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강당
- 참가비 : 무료
- 일정 및 내용

	날짜	시간	장소	영화
1	08.01(금)	19:00~21:00	회의실	와즈다(사우디아라비아, 독일)
2	08.08(금)	19:00~21:00	회의실	버틀러:대통령의 집사(미국)
3	08.22(금)	19:00~21:00	회의실	어떤 시선(한국)
4	08.29(금)	19:00~21:00	회의실	지슬(한국)

#### 4. 아산시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년~2015년(2차 유보)
-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15. 3. 4

#### 5. 인권네트워크

- 아산지속협, 아산시, 아산시의원
-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인권조례 준비 외

#### 6. 아산시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2~2016

- 2012년 아산시 인권 조례 제정 및 인권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개최
- 2013년 아산시 인권조례 어떻게 만들거인가? 토론회
- 2013년 아산시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해 이주여성이 수다로 풀다 1, 2
- 2014년 '아산시, 인권도시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정책토론회
- 2015년 아산시 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 간담회

#### 7. 아산시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2015년)

#### 8. 충남인권교육단체모임 : 2016년

-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 5차 회의 진행
- 9. 아산시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거버넌스' 운영 : 2016년
- 장미마을거버넌스 7차 회의
- 장미마을거버넌스 정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운영
- 2016년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 지속가능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거버넌스로 인권도시, 아산을 꿈꾸다' 참여그룹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인권네트워크 구축, 아산시인권교육활동가양성, 인권21 운영, 충남인권교육단체모임 구성,



**인권21**  
한여름밤, 작은 영화마당

일시 : 2014년 8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푸른아산21살천협의회 강당(온양온천역 방음객센터 내)  
대상 : 성인 누구나 참가비 : 무료  
문의 : 푸른아산21살천협의회 041)531-7791

---



**와즈다 / 8월 1일(금) 오후 7시**  
감독 : 아이파 알 만수르,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98분  
"이 영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자탄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왜 여자는 자탄을 할 수 없죠?" 세상을 바꾼 10명 소녀의 유쾌한 반란 제 이름은 와즈다. 요즘 최고의 편사는 바로 자탄계. 이슬람 법을 지키고 다니는 자탄인가 할성 무리하는 데 이슬람을 가정에 내 맘에 꼭 든 소복제 자탄인가 새로 등장! 영화에게 흠뻑 젖어 한 여자는 자탄계를 사면 아이를 못 낳느라 생뚱맞은 사투신데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 / 8월 8일(금) 오후 7시**  
감독 : 리 대니얼스, 2013년작, 미국, 132분  
8명의 대통령,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단 한 명의 집사. 울가물, 당신을 서로 겁을 한 한 편의 감동 실화! 고함을 마나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세일 제인(로제트)은 워싱턴의 손님을 용해하던 상선하고 친밀한 모습이 백악관 관료의 눈에 띄어 중에도 생각지 못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다.

---

**아면 사신 / 8월 22일(금) 오후 7시**  
감독 : 박정협, 신아기, 이상철, 2012년작, 한국, 109분  
<두탈어제>  
"한치레 차니는 소나기 같은 그 시절, 그 시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두 소년의 우정. 10평면 장계를 가진 두인과 가질 행만이 어려운 필름은 길은 건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서로의 일을 이해하는 같은 학교 친구이다.



**아면 사신**

---

**지수 / 8월 29일(금) 오후 7시**  
감독 : 오영, 2012년작, 한국, 108분  
1949년 11월, 제주성 사람들은 '백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는 통탄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모여 피난소에 오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단적으로 피난처를 사들여들은 군 통제장 생김으로 막대한 겁을 내내려오며 살아 두고 온 돼지 굴뚝처럼 창가집 격할 등의 소소한 가정사를 늘어놓으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지수**

거버넌스로 인권도시 아산을 꿈꾸다 79



장미마을거버넌스 사무국 운영,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아산시  
인권위원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장단협의회 인권 강의 준비, 아  
산시인권위원회 및 실무회의 참여

- 아산시인권네트워크 : 아산시인권조례(안) 협의 및 검토,  
아산시인권위원회 등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준비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자치행정과 : 예산 및 담당부서,  
전담 공무원 배치 협의 외
- 아산시의원 : 아산시인권증진및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거버넌스로 인권도시, 아산을 꿈꾸다’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3,000,000원,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아산시평생학  
습과 공모사업)
- 2013년 3,500,000원,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아산시평생학  
습과 공모사업)
- 2014년 2,200,000원,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자체 사업비
- 2015년 3,000,000원,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자체 사업비
- 2016년 7,000,000원, 아산시인권위원회(아산시 자치행정과)
  - 찾아가는 인권교육 : 2,000,000원
  - 인권교육활동가양성과정 : 5,000,000원
- 2016년 1,000,000원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 사업비
  - 장미마을 거버넌스 및 토론회, 워크숍

## 사업평가와 과제

이 사업을 통해 아산시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아산시인권위원  
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아산시인권위원회는 2016년 아산시  
17개 읍·면·동의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순회 인권강의

를 진행했다. 아산시는 공무원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아산지속협과 함께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아산시 행정력으로 인권교육이 공무원, 주민조직까지 확대되었으며, 인권교육 내용은 시민사회와 아산지속협이 담당하고 교육은 인권위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등 역할 분담이 유효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산안, 전담자 배치 등을 아산시, 아산시의원, 아산지속협이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협의 진행되어 온 과정은 거버넌스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권 도시 아산을 지향하고 있다.

아산시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표를 계획하며 인권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로 자리 잡고 있는 아산시인권위원회를 통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작동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본다. 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된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모인 강사단 ‘인권 21’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하며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아산 지역 시민 인권 인식 확장 속에 도심 가운데 성매매집결지인 ‘장미마을’ 인권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걸음을 떼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인권도시 아산을 지향하지만, 아산지역의 인권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권 문제가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권위원회 역할의 한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담과 언어 속에 성, 지역, 장애,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을 높이는 것 역시 과제이다.

